

**전기안전공사-광주시사회복지협 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희중·왼쪽)와 광주사회복지협(회장 방철호·오른쪽)은 최근 안전공사 본부장실에서 광주지역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1004 지역사회복지협’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3D 미래 콘텐츠에 달렸다”**

한국 온 ‘아바타’ 감독 제임스 캐머런씨



“3D의 발전은 기술이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3D 영화 ‘아바타’로 전 세계에서 28억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린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13일 서울 광장동 웨라톤 그랜드 위커킬 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린 2010 서울 디지털포럼 기조연설에서 3D 영화와 TV가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3D는 모든 형태의 콘텐츠에 가치를 더한다”면서 “좋은 콘텐츠는 더 훌륭하게 하고 심지어 지루한 콘텐츠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드라마와 코미디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바타’에서 드라마틱한 장면을 많이 만들었는데 3D는 이런 장면에서 관객들이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코미디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지만 내가 이제까지 3D로 했던 모든 것에 3D의 장점과 혜택이 있다.”  
캐머런 감독은 “앞으로 수년 동안 소비자들의 반발 없이 3D를 보급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3D 카메라 기술의 최첨단에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머런 감독은 ‘아바타’ 속편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1편은 4년반이 걸렸지만 2편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스승의 날 광주·전남 등 교원 6169명 포상**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0회 스승의 날(15일)을 맞아 교육발전에서 이바지한 광주·전남 등 전국 교원 6169명을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원 소양문 분병문 교장 등 6명이 훈조근정훈장을, 목포유달초 김남삼 교장 등 7명이 녹조근정훈장을, 경상대 하우송 총장 등 7명이 육조근정훈장을, 광주양산초 정남진 교장 등 18명이 근정포장을 각각 받는다. 한편 시상식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스승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열린다.  
광주·전남 국무총리상 이상 포상자 명단  
◇녹조근정훈장 ▲목포유달초 교장 김남삼 ◇근정포장 ▲광주양산초 교장 정남진 ◇대통령 표창 ▲광주제일고 교장 김병태 ▲광주농성초 교장 정수정 ▲광주백운초 교사 김은중(으뜸교사 표창) ▲여수교육청 교육과장 최원창 ▲목포제일중 교장 박찬주 ▲고급교 교사 양인 ◇국무총리 표창 ▲산정중 교사 김연호 ▲광주시교육청 장학관 기사 ▲서일초 교사 서은영 ▲임자초 교장 김명진 ▲예당초 교사 유혜숙 ▲회진초 교장 신기동 ▲곡성고 교장 조정연 ▲광양실고 교사 송병관 ▲광주여대 부교수 정철원 ▲순천대 교수 오원근  
/복원기자 lucky@kwangju.co.kr

**환측**

승의 날 기념 행사=15일(토) 오후 6시 상무지구 고다미. 010-4604-2958.  
▲광덕고 졸업 20주년 행사=15일(토) 오후 6시 상무지구 조선컨벤션 웨딩홀 2층(백두홀) 011-9609-0955(7회 동창회장 강성철).  
**종친회**  
▲문화유류 하정공파 광주종친회(회장 류수택) 유적지 답사=16일(일) 오전 8시30분 모자보건센터 앞 출발. 010-3051-2415.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신앙특강 ‘예수는 정말 부활했

**동창·동문회**

▲통신고 제17회(회장 정재근) 스

**1969년 전경 근무때 사고 기사 확인 국가유공자 재심 신청 주연수씨**

**“잃어버린 40년 광주일보 통해 찾았습니다”**

“지난 40여년간 ‘세월의 벽’에 가려져 있던 명예를 되찾아 기쁩니다. 이제야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광주일보 조사자료를 찾은 주연수(72·서울시 동작구)씨와 딸 복순(53·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씨는 40여년 전의 빚바린 신문을 받아두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주씨의 손에 들린 것은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의 1969년 2월 28일자 신문. 이날 기사는 지난 1969년 2월 26일 오전 11시40분께 장성군 장성읍 못재에서 25명의 전투경찰을 태운 경찰트럭이 27m 아래 내려져서 굴러 떨어져 1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라는 내용이었다. 전국의 신문사를 수년 동안 뒤진 끝에 찾은 이 신문으로 인해 그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사고로 인해 트럭에 타고 있던 주연수(당시 전남경찰국 경비과 작전계 순경)씨는 척추 골절에 하반신 마비가 생겨 전남대 병원에서

1년 이상 입원했다. 주씨는 퇴원 후에도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다리를 펴고 보행에도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결국 퇴원 후 현장 활동이 적은 대공(對共) 분야로 진출해 일해오던 주씨는 지난 1997년 12월에 퇴직했다.  
하지만 주씨는 퇴직 후 국가유공자 신청에 나섰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1969년 사고 당시의 자료가 증거가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함께 경찰로 근무했던 동기생의 진술을 담은 증거 자료를 보존장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당했다.  
고심 끝에 주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의 언론사와 경찰청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하지만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에는 주씨 등이 당한 사고 내용이 전혀 없었다.  
또 40여년이 지난 탓에 전남대 병원의 진료기록에도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국방부에 문의해도 당시 FTX(야외전술훈련)를 한 기록이 없다는 답변 만이 돌아왔다. 당시 전경대장이었던 임홍식 대장을 수소문해 찾아봤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다.  
결국 주씨는 ‘사고 당시 진단서 한 장 만으로

는 공무중 일어난 사고인지 알기 어렵다’며 지난 2월 국가유공자 등록 부결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주씨는 포기하지 않고 전국의 언론사를 찾아다니던 끝에 광주일보에서 자신이 당한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방부·병원 진료기록 전혀 없어  
주씨는 이번에 찾은 신문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최근 보존처에 재심을 신청했다.  
주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이제서야 한을 풀었다”며 “40여년간 ‘세월의 벽’에 가려 있던 진실과 명예를 되찾은 것 같아 너무도 기쁘고 고맙다”고 말했다.  
/양승환기자 yang@kwangju.co.kr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 1969년 2월28일자 7면, 이날 장성 못재에서 발생한 경찰트럭 전복사고 기사가 실렸다.

**故 이순정 여사 빈소 정·재계 발길 이어져**

정의선·신동빈 부회장 등 조문



고(故) 박인천 금호아시아나 그룹 창업회장의 부인인 고 이순정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는 13일에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 등은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결을 지키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 박찬구 금호석유 화학 회장 등 유족들을 위로했다.  
정 부회장은 오후 12시40분께 정진행 현대차 부사장과 함께 빈소를 찾아 박삼구 명예회장 등 유가족을 위로하고 오후 1시께 빈소를 떠났다.  
순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박병석 민주당 국회의원, 나가세 신 전일본공수(ANA) 부사장도 조문했다.  
앞서 12일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현재현 동아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김윤 삼양사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함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과 임경택 산업연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 이순정 여사의 빈소를 찾아 박삼구 명예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 부회장, 송기진 광주은행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  
정부 측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정경걸 대통령실장이 다녀갔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우식 전 교육부장관,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모습을 나타냈다.  
/박정호기자 jwpark@kwangju.co.kr

**‘올해의 초의상’에 여연스님·제미경씨**

전남 해남 초의문화회 집행위원회는 올해의 초의상 수상자로 여연(강진 백련사) 스님과 제미경(74)씨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연스님은 지난 18년 동안 차의 성지로 불리는 일지암 주

석을 지냈으며 (사)일지암 초의차 연구회를 설립하고 초의상 심사위원, 동국대 불교대학원 차 문화콘텐츠학과 책임교수, 한국차문화학회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차계의 후학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인정됐다.  
원로대인인 제미경씨는 지난 1981년 (사)한국차인연합회 대구지회를 창설해 차 문화발전에 헌신하는 한편 한국의 차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광주대 창설자 김인곤박사 동상 제막**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13일 오전 인문사회대 앞 교정에서 대학 창설자 김인곤 박사 동상 제막식과 호심기념관 개관식을 가졌다.  
광주대는 올 초 개교 30주년을 맞아 창설자의 숭고한 뜻과 교육적 열정을 기리고, 후학들에게 모교사랑의 마음과 건학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 호심학원 창설자 김인곤 박사 기념사업회를 설립했다.  
김인곤 박사 동상제막식에는 3억원이 소요됐으며, 조선대 김인경 교수가 동상 제작을 맡았다. 특히 김인곤 박사의 목포고 은사인 정무동 전 광주대 대학원장이 7000만원

을 동상 제작비로 기탁하는 등 행사의 모든 예산이 성금으로 이뤄졌다.  
한편 호심 김인곤 박사는 1928년 영광 출생으로, 조선대 졸업 후 연세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를 취득했고,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제 13·14·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5·18광주특위 간사, 국회 행정위원장, 한·파라과이 의원 친선협회장을 지냈다.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고문을 거쳐 2000년 정계를 은퇴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늘 기쁜 지역 이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 = 초·중·고·대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놀이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 모집 = 풍물반(수·오 후 3시), 난타반(목·수·목 3시), 장구초보반(화·오 후 7시 30분), 중급반(월·저 7시 30분). 062-523-0474, 010-2658-0876.
- ▲북구 한글복지재단 가곡 노래교실 ‘참고운소리단’ 회원 모집 = 55세 이상 가곡을 사랑하는 남녀. 010-9886-9775.
- ▲장애인 체육 동호인 모집 =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jsad.or.kr), 전화 상담부 신청. 062-384-5544.

**부음**

▲박성애씨 별세 법진호·진석·진삼·진곤·진경·순진·인순씨 모친상 김상중(서구 금호1동장)·고환근씨 방모상=발인 15일(토) 무등장제식장 203호. 062-515-4488.  
▲윤장임씨 별세 김두석(전 장흥

- 서초교 교장)·진수(리바트 대표)·진상(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진환(목사)·아실·연실·전실·진실씨 모친상=발인 15일(토) 무등장제식장 101호. 062-515-4488
- ▲박정복(별교중앙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씨 별세 진영·우영·계영씨 부친상=발인 14일(금) 별교중앙제식장 1호실. 061-857-3000.
- ▲김우섭씨 별세 지영·소영·희영·은정씨 부친상=발인 14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원상. 062-231-8905.

**일주일간 금성장례식장**  
☎27-4000

**최회묘역(여/86세)**  
구/부/명: 김경희 / 박민 / 이수진 / 이매자  
장/부/명: 최경민 / 김희식  
부/명: 최호순 / 김희순 / 최호순 / 최정순 / 최정현 / 최정민 / 최정호

**최가족실(여: 85세)**  
구/부/명: 박복순 / 허영민 / 박원호 / 임용태 / 박정호 / 김희순 / 박정호 / 최정호 / 최정민 / 김희순 / 박정호 / 최정호 / 최정민

임/부/명: 최희 70세  
장/부/명: 최희 84세  
장/부/명: 최희 80세

상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추진장 - 정경민 출석!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중일상조가자(사)주주주주주주  
기입문의 1688-3740